

국제화시대 문화유산의 발견과 보존

Discovering and Preserving Cultural Treasures in an Age of Internationalization

Jim Coffin *

- ▶ 주최 :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 ▶ 일시 : 96. 4. 4 (15:00-17:30)
- ▶ 강연 : **Jim Coffin**
- ▶ 통역 : 강봉원 (고고학 박사)
- ▶ 토론 : 신용철 (경희대 중앙박물관 관장, 사학과 교수)
이석우 (경희대 사학과 교수)
조인성 (경희대 사학과 교수)
박기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경영대학원장)
- ▶ 번역 : 정진봉 (경희대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원),
이연의 (경희대 중앙박물관 조교, 국문학과 박사과정)

현재 경희대학교에서는 미국의 볼 스테이트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학술 교류의 중심 주제는 '세계화 시대에 문화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교류의 일환으로 4월 4일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는 「국제화 시대 문화유산의 발견과 보존」이라는 제목으로 Jim Coffin 교수의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다음에 Jim Coffin 교수가 제공한 초록과 강연내용을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 발표 요지

이 세미나는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문화 변화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특히 한 사회 문화 체계가 새로운 가치관이나 문화, 행동 양식을 자신의 문화 체계속으로 도입할 때, 또는 다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요소들을 자신의 사회 문화 체계속으로 유입할 때 작용하는 유인 요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할 것입니다.

* Department of Anthropology
Director, Center for International Programs
Ball State University, U. S. A.

이 연구발표에서는 우선 한 사회가 새로운 문화나 가치관 또는 다른 사회의 행동규범이나 문화체계 등에 대해 보이는 다양한 반응양상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다양한 반응 양상 속에 항존해 있으면서 한 문화가 주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기 문화를 형성하고 보존할 수 있게 하는 힘(핵심 인자)에 관한 견해와 문제 제기가 제시될 것입니다.

한 시간 정도의 강의 후에는 청중들과 질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질의 응답은 주로 한국에서 문화 변동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문화 체계는 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 도처에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안을 세우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볼 때 더욱더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안들에는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들의 의도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들은 진보라는 미명아래 자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제 3세계 국가의 국민들까지 자국 시장의 소비자와 자원공급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화를 표방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세련되게 다듬어져 왔고 앞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적 전통 구조에 기초를 두고 저력있는 국제화의 영향에 대응하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화에 대한 반응 양상의 구조 속에서 국제화의 충격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문화 형성에 참여하는 개개 구성원이 각자가 꼭 보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화 유산들을 찾아내어 지키고 계승해가는 작업을 계속 하게 하는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략과 관련하여 새롭거나 독보적인 견해나 문제의식이 소개되기를 바랍니다.

● 목적

이 세미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한 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2.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화 유산에 대해 알기 위해서
3. 사례 고찰을 통해 국제화의 영향과 반응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 보기 위해서
4. 앞에서 도출된 견해를 바탕으로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1. 환경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개인적 경험에 대하여 토의
2. 인류가 자연 환경과 맺고 있는 가치를 부각시킬수 있는 학제적 전망을 모색

3. 국제화의 결과가 지역적, 자연적, 문화적 환경에 미치리라고 예측되는 영향에 관하여 토의
4. 환경 변화가 문화적 전통의 변화에 야기시키게 될 부정적 결과나 긍정적 결과를 알아보기
5. 각각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인간과 자연 환경 사이의 관계 형성이 갖는 문화적 의미의 중대성에 대해 이해
6. 인류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자연 환경이 수행한 역할의 가치에 대하여 보편적 가치 기준을 모색하고 수립하기
7. 인간이 자연 환경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적 의도를 담은 공언(선언문)을 고안하고 채택하는 것에 관하여 의논

PATTERN OF PROGRESS AND THE CHALLENGES OF CHANGE :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ALUES, CULTURE,
AND GLOBALIZAION

PRESENTATION ABSTRACT

TITLE : IDENTIFYING AND PRESERVING CULTURAL TREASURES IN AN
AGE OF INTERNATIONALIZATION

PRESENTOR : DR. JIM COFFIN,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DIRECTOR, CENTER FOR INTERNATIONAL PROGRAMS
BALL STATE UNIVERSITY, U. S. A.

INTRODUCTION

Dr. Coffin's lecture will last approximately one hour. After the lecture, time will be allowed for dialogue with the audience which is encouraged to discuss Korean examples of some of the issues and questions raised in the lecture.

ABSTRACT

Dynamics of cultural change will be discussed in terms of factors conducive to the introduction of new or different ideas, objects, and behavioral pattern into the socio-cultural system. Various group responses to the above will be addressed. Issues and questions will be raised regarding identifying and preserving "treasures" factor into these group responses.

A dialogue with the audience will follow in which Korean Examples of the lecture's subject matter will be addressed.

PROBLEM STATEMENT

No socio-cultural system on Earth is ever exempt from some form of change. This is never truer than today as scenarios relevant to change can be found everywhere. Facets of these scenarios include attempts by First World powers who, in the name of "progress", seek to render not only their own peoples, but populations of Third World nations, both consumers and resource providers of First World lifestyles.

This process has been given the label "internationalization", responses to the potential effects of internationalization on the fabric of culturally-valued traditions need to be discussed.

It is in this framework of responses to internationalization that participants need to identify cultural treasures that each feels must be preserved despite the impact of internationalization.

Specific issues and problems inherent to each strategy for preserving these treasures need to be addressed.

GOALS AND OBJECTIVES

1. To identify culture-specific "treasures."
2. To identify universally shared "treasures."
3. To consider the effects of internationalization on the above, including exemplary case studies.
4. To consider strategies for preserving treasures, including precedent-setting case studies.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proposed dialogue is as follows :

- Discussion of the personal experiences of environmental change;
- Exploration of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the value of the human relationship to the natural environment;
- Discussion of perceived impacts upon local natur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s a result of internationalization;
- Identification of perceived positive and negative consequences of environmental changes upon cultural traditions;
- Understanding of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human relationship to the natural environment in specific geographical location;
- Identification and exploration of universal values relative to the role of the cultural environment in human culture;
- Discussion of options available to the environmental design professions for sustaining the essential cultural values of the human relationship to the natural environment.

국제화 시대 문화유산의 발견과 보존

우리는 편협한 민족주의와 물질주의 때문에 야기된 인류 사회의 제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세계적인 협력과 선의에 기초해서 미래의 지도자인 학생들이 전인류 가족주의의 정신을 갖도록 교육하여 고귀한 목적의 달성에 협력하고자 합니다. 볼스테인트 대학에서 온 우리 대표들도 학생들에게 전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인 좀더 나은 세계의 건설을 자신의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게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데 적용할 지혜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대학이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목적이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일련의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모든 인류가 직면해 있는 현대의 병폐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탐구가 10월에 다시 만날 때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균형잡힌 탐색을 통해서만이 문제의 해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학문적으로 전망을 창조함으로써 희망의 빛을 드리워 주는 개척자이자 탐험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노력할 때 모든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전망은 사회인류학의 이론적 바탕에서 역동적인 문화변동을 연구하는 가운데 배태된 것입니다. 문화 변화에 대한 논쟁들은 가치관이 이데올로기와 문화의 구성요소와 행동양식을 선택하는 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문제의식과 쟁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나는 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이 새롭거나 다른 사상, 물질적 생활 양식, 행동 방식 등에 노출되는 수많은 과정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미래에 어떤 사상, 물질적 생활 양식, 행동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선택 하도록 도전하는 과정에 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좋은 전략을 고안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제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의문과 쟁점에 관하여 강연이 끝난 후에 우리 모두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I. 전파주의(Diffusion)

사회인류학자들은 새롭거나 다른 행동방식, 예술품, 이데올로기 등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촉매로서 작용하는 다양한 과정들을 분류하고 명명해 왔습니다. 그 중 하나의 과정은

전파주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파주의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의 요소를 자발적으로 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극적 전파(Stimulus Diffusion)

전파주의의 한 유형은 스티물러스 디퓨전입니다.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문화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들고자 하는 스티물러스 디퓨전의 예들은 차메이카와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문화, 그리고 체로키 부족의 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티물러스 디퓨전은 한 사회의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 변형하고 재구성하여 그 문화의 한 국면을 자신의 문화속으로 흡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1800년 경에 체로키 인디언은 미국의 동부에 있는 그들의 땅에서 쫓겨날 위협에 처했습니다. 체로키 인디언들을 쫓아내는 것은 체로키인들이 신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땅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체로키 인디언들은 그들의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땅을 빼앗겨 버린 미개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미국 이주자들은 인디언을 미개한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에 대응해서 체로키인들은 영어로부터 알파벳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등 문명화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체로키 인디언들은 알파벳을 가지면 문명화 될 수 있고 자신들이 읽고 쓸 줄 알게 될 때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인디언들이 문명화되자 미국의 개척자들은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로키인의 알파벳(문자)이 고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체로키 언어의 음운 체계에 적합하게 맞도록 재형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체로키인들은 읽고 쓸 수 있게 문명화되었습니다.

결국 체로키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백인이 하는 모든 것을 모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의 전략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디언들은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 서부로 이주했습니다.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생각의 요지는 때때로 한 민족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다른 문화를 차용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문화에 적합한 어떤 것이 되고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국에서도 과거 역사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거나 지금 현재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집단으로 하여금 다른 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시간적(시대적) 능률성(효용성)입니다. 다른 문화로부터 차용한 것이 그들의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고양시키고 국가적(민족적)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다른 사회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받아들이는 데서 사회적 이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이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이 사회 전체에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일부 소수층에게만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엘리트 그룹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문화로부터 행동방식과 물질적 생활양식과 사상을 빌려옴으로써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입된 문화는 그 사회에 대단히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 되어 귀중한 문화의 목록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소중한 문화 유산이 되었습니다.

회소가치가 있는 문화요소를 통제하는 것은 권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문화 유산은 종종 민중의 손에서 박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언급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이 정의되곤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국에서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 문화변용(Acculturation)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응해서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비교하고 대비하여 맞추어 보면서 문화변화를 유도해가는 또 하나의 과정은 다른 사회 문화와의 접촉·이입에 의한 문화 변용입니다. 정의에 의하면 문화 변용은 강요된 변화가 아니고 어린이가 어떤 문화형에 순응하는 것과 같이 자발적인 의지의 결과라는 점에서 스티플러스 디퓨전의 반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 변용은 상위 문화가 다른 문화(하위 문화)로 하여금 상위 문화를 모방하도록 강요하여 한 문화 집단을 식민지화 해가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약소한 문화속에 내재해 있으면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인습은 문화 변용을 해야 할 정당성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그 관습은 우세한 문화가 집행하는 정책 계획 대상의 일부가 됩니다.

II. 문화 변화에 관한 논의들의 철학적 배경

1) 사회진화주의

사회진화주의는 생태계에서처럼 한 사회의 문화가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논의하는 철학입니다. 산업화에 의해 새로운 사회적 환경이 도래됩니다. 그리고 산업화

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힘든 문화들이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문화가 대중을 흡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진화주의는 문화변용을 지지하는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주의

사회진화주의와 문화 변용에 대비되는 철학은 상대주의 철학입니다. 상대주의는 사회진화주의와 문화변용론에 대항하여 논리적 반박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논리적 반박의 내용은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그것보다 열등한 문화로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의 문화와 비교하여 한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대주의에서는 진보가 한 집단의 환경 적응 방식을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는 전혀 서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지만 꾸준히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곧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변용에 의해 그들 자신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그들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들의 문화유산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한국의 문화나 어떤 문화가 문화변용의 압력에 희생된 예에 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식민지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한 문화가 문화변용의 과정에서 무엇을 그들의 문화 유산으로 규정하게 되기 쉬운가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보호하고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존될 만한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 물질적 생활양식, 장소(유적지), 행동방식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결코 문화변용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위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도전하기 전에는 이러한 문제로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문화변용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시점은 바로 미국인 자신이 미국인에게 무엇이 신성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일에 직면할 때일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문화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문제는 어떤 전략이 문화변용에 대항해서 자신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문화는 국적불명의 상태로 다른 문화를 식민지화 해가면서 전체 인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여러분에게 위협입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문

화유산입니까? 식민지화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워놓은 계획이나 전략은 무엇입니까?

문화변화의 궁극적인 결과는 동화입니다. 동화는 다른 그룹의 문화와 같은 형태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전적인 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대답은 아마 '아니다' 일 것입니다.

Ⅲ. 재건운동(Revitalization)

완전한 동화에 대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양산해 내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영역입니다. 개인과 집단은 우세한 문화의 생활 방식에 순응해야 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순응의 이데올로기적 합리화(정당화)를 거부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정당화를 거부하는 개인들을 우리는 반체제 인사라고 부릅니다. 반체제 운동은 우세한 문화의 전망이 문화 변화를 지배하는 것에 대응해서 문화 변화에 영향을 주는 두개의 다른 양상으로 실현됩니다. 두개의 다른 운동 과정은 바로 재건 운동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반란 또는 혁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1) 재건운동

재건 운동은 한 집단 속에서 비순응적 움직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재건 운동은 다른 문화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고 사려깊게 시도하는 운동입니다. 재건 운동은 자신의 문화관습이 다른 사회의 지배를 정당화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리고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습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문화적으로 희생되는 사회는 자신의 집단이 치르고 있는 문화적 희생이 결국 우세한 문화를 가진 사회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된다는 것에 근거해서 이 정당화를 비판합니다. 이 희생된 사회는 그 사회만이 가질 수 있는 명확한 특성을 보유한 관습을 가지고 우세한 문화 관습의 지배에 저항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관점에서 귀중한 문화 유산이 규정될 때 사람들은 그 귀중한 문화 유산을 자신의 가치를 상징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임과 동시에 그러한 문화 유산의 보유자로서 그들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 운동은 어떤 면에서 희생되는 사회가 이류나 삼류의 시민사회로 간주되거나 귀중한 문화유산을 잃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에 내적인 힘을 부여하려는 전략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 운동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은 대체로 정신적인 것입니다. 재건 운동의 지도자는 대체로 그 사회를 새롭게 재형성하고 재규정하는 과정을 이끄는 메시

아 타입의 인물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정주의자의 논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종 귀중하게 계승되어야 할 신념이나 행동방식에 대해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재건운동의 두가지 예를 들면 아메리카 인디언의 유평춤과 자메이카의 댄스(민속춤)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유평춤과 자메이카의 댄스를 재건하는 움직임은 우세한 문화집단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 유산이나 그들 자신의 가치를 상정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아 타입의 지도자는 자기 민족에게 우세한 문화가 부정적으로 자기 민족 문화의 가치를 상정하는데 따라 자기 문화를 희생당하지 말고 대신에 강력하게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 자신과 문화의 가치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자메이카의 댄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에 의해 정립된 전통속에서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 현대사에 이러한 재건 운동의 예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즉 한국에서 오늘날 정치·경제적 목적에 의해 부정적인 관습으로 낙인찍힌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문화적 스테레오타입을 다시 찾아내고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재구성의 움직임에 이어 한국이 바로 지금 현당대에도 앞으로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문화 유산을 창조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영광스럽게 한 귀중한 문화 유산만큼 지금 현대 한국에서 민족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데 민족적 자부심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화가 창조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당신들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로부터 귀중한 전통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로서 보여지는 어떤 것과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IV. 정부 주도의 직접적인 변화(Government-directed Change)

마지막으로 문화가 변화하는 또하나의 과정은 정부가 직접 주도한 결과 생성되는 문화변화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시·규제되는 변화입니다. 정부는 종종 그들의 경제·정치 체계를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강대국이 약소국의 자연자원과 노동력을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강대국들은 지금까지도 세계의 여러 지역을 식민지화하고 값싼 인적·물적자원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대화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강대국의 시장전략이 약소국 사람들로 강대국 문화의 소비자들로 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화는 종종 세계적으로 광범위하

게 펼쳐지는 소비자 중심주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동기때문에 강대국의 시장전략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자기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는 정신은 희생되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화와 세계화는 결국 소비자 중심주의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아이러니칼하게도 세계속에서 시장성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과도하게 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동적 변화의 사례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이 자원의 원천으로 사용된 때부터 시작된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세계 경제에서 매우 경쟁적인 위치에 있을 경우 어떤 것이 현대화와 세계화의 움직임에 의해서 도입된 새롭거나 다른 가치관, 신념, 문화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오십년 동안 이러한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문화 유산을 새롭게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의 변화 과정에서 가치있는 신념이나 문화 구성 요소나 장소, 행동양식 등에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도전하는 과정에 대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과정은 우리가 문화 유산으로 인지하는 많은 것들이 문화의 변화과정에서 결정된 것임을 이해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여러분이 보호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또한 인간 정신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요약>

이상의 강의가 진행된 후에 신용철 교수와 이석우 교수, 강봉원 박사, 조인성 교수(경희대 사학과 교수), 박기안 교수(경희대 경영대학원장) 등에 의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신용철 교수는 Jim Coffin 교수의 강연 내용에서 미국이 문화 식민지화에 의해 도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미국의 문화는 독자적으로 성립된 상태에서 외부의 도전을 이겨낸 문화라기 보다는 유럽의 문화적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석우 교수는 문화식민지화에 대해서 Jim Coffin교수가 강연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Jim Coffin 교수는 어떤 것이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Jim Coffin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유산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귀중한 문화유산이었음을 자각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문화유산을 잃어버리기 전에 문화유산을 규정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또한 세계화와 산업화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미나의 의의는 자신의 민족문화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70년대 이후로 계속 가속화 되고 있는 전통 복원의 움직임과 전통 재창조의 움직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가 가치있게 여길 수 있는 한국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Discovering and Preserving Cultural Treasures in an Age of Internationalization

- ▶ The host organization : Central museum of Kyung Hee University
- ▶ Date : 96. 4.4. (15:00-17:30)
- ▶ Lecturer : **Jim Coffin** (Professor of Ball State University)
- ▶ Simultaneous interpreter : **Kang, bong won**
- ▶ Dictation : **Lee, yeon eui**

We follow the series of lectures and dialogues regarding values of culture in internationalization. This is the first of theory conference that Ball State University Kyung-hee in October of this year, delegation of your university came to our university. As for the that conference, we are planning a some that your student can discuss with Ball State University students of issues.

That collaborate. To solve human problems caused by narrow-minded nationalism and materialism by educating in your students. The leaders of tomorrow their spirit of human familialism based on global cooperation and good will.

We at Ball State echo these noble goals. It is the mission of those of us in the Ball State delegation to provide our students with the skills and the wisdom to apply these skills in identifying and implementing panhuman goals for the building of a better world.

This common purpose has led to this series of dialogues between you and us. It is our hope that this dialogue will culminate (end) in real solution to the contemporary ills the faith all humanity.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quest when we meet again in October.

Solution can only be reached by a regular exploration of problems. All of us are explorers and pathfinders shedding light from our own disciplinary perspective. Hopefully our collaborate efforts will result in revelations useful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all humanity.

My own perspective comes from the discipline of social anthropology which includes a study of the dynamics of culture change. A discussion of culture change is very relevant to our goals as it raises questions and issues about how choices regarding ideology material objects and behaviors are influenced by values.

This will be my topic today. I want to discuss a number of processes that expose people to new or different ideas, objects and behaviors, processes that challenge people to make choice about their future in the course of this discussion. I hope to make you think about questions and issues which will must be considered, if we are to device well - thought out strategies for accomplishing our mission so eloquently articulated in Chancellor cho's statement in your university's portfolio.

After my remarks, we need to have a discussion involving all of you, regarding questions and issues that came to your mind in the course of this lecture. So let us begin.

I . Diffusion

Social anthropologists have given labels to various processes that serve as catalysts for decisions to accept or reject new or different ideologies, artifacts and behaviors. One process is known as diffusion. Diffusion is the voluntary borrowing of same facet of another groups culture.

1) Stimulus Diffusion

One type of diffusion is known as stimulus diffusion. As I go about giving examples, I am going to give examples from the cultures that I'm familiar with. And those include the Indians of North America and also the cultures of Jamaica. My example for stimulus diffusion involves Cherokee tribe. Stimulus diffusion occurs with the group of the people accept another culture and rework it, reformulate that aspect of culture into it's own culture.

Around 1800, the Cherokee Indians of the eastern United States were threaten with

expulsion from their lands. The justification for this was that Cherokee did not know how to use their lands according to God's plan.

Then they were uncivilized savages who need to be driven from their lands so that people who knew how to use their lands could. American settlers described the Indians as uncivilized and therefore justified the war against.

In a response to this, the Cherokees did all that they could to appear civilized, including borrowing the idea of an alphabet from the English. It was believed that they had an alphabet, they would appear to be civilized, they would become literate.

And by being civilized, the American pioneer would have lost their excuse to go the war. And so was an alphabet devised. It was reworked to fit the sound system of Cherokee language. And soon the Cherokee were literate in writing and reading.

The Cherokee also became slavers. Doing anything that they could to imitate their white people. In the end, their strategies didn't work. They were thrown off the lands and moved to the western.

My point is that often times people would borrow from another cultures for political reasons and try to be something that, they think, will be acceptable to others.

I ask you, if this has happened in Korea, both historically and also at the present, do you it has happened.

Other factors that might lead a group to borrow another group's culture will be caused in time efficiency. What is borrow might make them more competitive. We often borrow from others to enhance ourselves and national image.

All of us might see that there are social benefits in the new item. When we talk about social benefits, we have to find to define socio in a number of ways. Something that may be beneficial, or just a segment of the population. Throughout human history, elite groups have ought to maintain their power by borrowing ideas, objects or behaviors from another culture for their own selfish interest. That which is borrowed become highly valued to that group and takes on the status of treasure.

The treasure thing is often kept out of the hands of the masses, because to control the rare or desired item leads to power.

Question : Has this happened in Korea, both in the past as well as present?

Our treasures are often defined in the ways I've just mentioned.

2) Acculturation

Another process conducive to confronting people who change is acculturation. By definition, acculturation is the opposite of diffusion in that change is a forced and not a willful result.

Acculturation usually happen in the setting of colonization in which dominant culture attempts to force another culture to become like it. From the justification for acculturation can be found in the negative stereotypes of the weaker culture. The stereotypes become part of the political system of the dominant culture.

II . Philosophical ground

1) Social Darwinism

In philosophy, we have social Darwinism in which it is argued that, like organisms society, is in culture may not fit to survive. New social environments come about such as industrialization. And is argued that there are some cultures that are not fit to survive in that environment. Therefore it is in the natural order of things to absorb that population.

Therefore social Darwinism was in argument for an acculturation.

2) Relativism

Another philosophy argued against Darwinism and the acculturation that was the philosophy of relativism. Relativism present it to the borrowed and logical argument against social Darwinism. The logical argument was that it was not logical for one culture to judge another culture as its inferior. It was illogical to do this, because cultures are too different to be compared and to compare another people as inferior was compared judgment.

Relativism also argue that progress should be measured with any style of adaptation.

That of people adapted along Non-Western lines that was still in progress. Progress was adaptation.

Relativism also argued that all people should be allowed to identify and preserve their treasured things and they should not lose them to acculturation. The question would be for discussion later as Korean cultures or some cultures have been victimized by the pressures of acculturation.

On the other hand, has Korea in his history been colonized. Other questions regarding on acculturation : In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what are people most apt to define their treasures? What do they want to protect and preserve? And you can think treasured ideas, treasured objects, places, peoples behaviors.

Americans have really never been threatened by the acculturation and probably until we are not be challenged to ask these questions to ourselves. It's only when we are faced with to us, what that we truly begin to define what is sacred and treasured to us. There are cultures with in America that have been faced with the crisis to lose it.

Other questions : What strategies could and would be brought to bear to counteract acculturation?

What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s this : Is there today a "colonizing culture" that has no nationality yet threaten specific groups or humanity in general.

Why is it a threat to you?

What do you treasure that is threaten to be lost?

And what must you all of us must do to conspire against that culture?

The end result of acculturation is assimilation. Assimilation is the total conversion to another group's culture. But a question can be raised. Is there ever really total assimilation? The answer is probably not.

III. Revitalization Movement

It is in the realm of ideology that one finds various to complete conversion. Individuals and groups might go through the motions of conforming to a dominant

culture's material life, at relatively same time, rejecting the ideological justification.

These individual become diss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minant culture, a dissidence that sets in motion two other processes for culture change.

Those are two other processes of revitalization movements and rebellion or revolution.

1) Revitalization movement

Non conformity come bring about revitalization movement. Revitalization movement are deliberate attempts by a people to get out from under the dominance of another culture.

Revitalization movement begins with the perception that a group is the victims of another group's stereotype which justifies its dominance over.

The victimized group criticized this justification on the basis that it servers to political ends of dominant group. The victimized group counteracts this stereotype with its own positive characterization of itself.

Often it is, at this point, when treasured thing become defined. People define themselves by those thing they are all treasured Therefore what they treasure as well as themselves seem to be worth preserved.

Part of Revitalization movement is strategies to empowered the victim to avoid being treated as second or third class citizens. And to avoid losing what it treasures.

The source of power in a revitalization movement is usually spiritual one. The leader of a revitalization movement is usually a messiah - type figure who leads the process are redefining and recharacterizing the groups.

These processes require revisionist arguments. They often included romantic ideas about treasured beliefs and behaviors.

A couple of example Revitalization movement that I'm familiar with the ghost dance among the American Indians and the Rastafarian dance in Jamaica. How many are you familiar with bomb bali and reggae.

Both these movement - Both ghost dance and Rastafarian dance in Jamaica-movements would result their people feeling like ---dominant cultures had since define them and for the selfish purpose of the define. And messiah type figures came among

both of people telling them not to be victimized by those negative definitions but instead, to redefine yourself in a powerful positive way. The Rastafarian dance in Jamaica are still in existence and have found strong with in their own defined traditions.

Questions :

Are these Korean example of revitalization movements especially contemporary one?

What cultures today might negatively stereotype Korea for political and economic ends?

How has Korea reacted to these stereotypes?

Very important question is : Does Korea have contemporary treasures?

Which serve a sources of pride which become as significant in positive self-image as treasured from a glorified past?

What I want to ask you to think about is can you identify something that can be seen as a treasure from a current culture?

IV. Government-directed Change

Finally, another process of change is directed change which occurs as the result of government-directed change.

Governments are often motivated to modernize their economics and political systems. Because stronger nations use the natural and human resources of weaker nations. To support the life styles of strong. Even today, stronger nations in a sense colonize areas of the world and take natural resources and use cheaper labor.

Another reasons of government motivate to modernize is that the marketing technique of stronger nations had result making people of weaker nations consumers of the culture of the stronger nations. Internationalism can often means world-wide consumerism.

Because of the first two motivations, national self-esteem are often at stake due to the marketing strategies of the stronger nations. Therefore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linked to consumerism. That like these just be exemplified by Korea - Ironically often out market and out compete.

Questions can be raised :

Is Korea in example of these dynamics?

And I'm talking about from the beginning being used as the sources of natural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To the point where you are now very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economics. What new or different values, beliefs, materials, and behaviors have been introduced by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You've gone through so much changes in the last fifty years that has this change brought about newly defined treasures.

This will end my lecture on culture change processes challenge us to identify valued beliefs, objects, places, persons, and behavior patterns.

Each process causes us to realize there is culture change so do the thing we perceive as treasures.

May your present and future be filled with a culture which enhances the human spirit and which you treasure enough to protect and preserve.

Thank you.